

‘자성과 쇄신 결사’ 어떤 내용 담았나

조계종의 대국민 신뢰회복, 종단 자주역량 확보 중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자정과 쇄신 결사’를 제시했다. 종단은 이번 결사와 관련 추후 불교계 전체의 지혜를 모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자정과 쇄신 결사’는 종단 및 사찰운영 인식전환과 종단 지도력 확보, 조계종의 신뢰 회복 및 종단의 자주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결사는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수행결사를 위해서는 분사별 결계 포살 시행, 승가복지 시행,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추진된다. 문화결사는 전통 문화 규제 법령 폐지 및 개정과 보존정책 수립, 민족문화 보존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생명결사에서는 방생과 순례,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존중 의식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생명살림을 위한 청구제정 및 시행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나눔 결사를 위해서는 결식 아동 지원, 이웃과 사회를 위한 108배, 나눔과 무소유 캠페인이 펼쳐진다. 평화 결사를 위해서는 종교간 대화 및 교류활동, 종교차별 예방 및 대응활동,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 등이

제시됐다. 자승 스님과 종단은 또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을 위해 사회 각계의 지지와 연대를 위한 간담회, 권역별 본말사 주지 대중공사, 교구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결성,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자정과 쇄신 결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천불교 승가회 대표 퇴후 스님은 “기본적인 의제가 잘 선정된 것 같다. 중요한 내용은 다 포함됐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조계종 ‘민족문화수호’ 역량 집중한다

한국불교세계화 등에도 공동 노력 기울일 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2011년 조계종의 주요과제 방향도 제시됐다. 올해 조계종은 ‘민족문화수호’ 활동에 따른 쇄신과 변화, 자주성 회복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한국불교 세계화’에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추진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해 11대 핵심과제 25개 주요과제가 추진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9대 핵심과제, 17개 주요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 평가를 토대로 집중성을 강화한 것이다. 9대 핵심과제는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 개선 △사찰 중심의 지역 포교 활성화 △승려복지 시행 △종단 재정구조 다변화 △불교 규제법령 폐지 및 개정 △한국불교 세계화 △사회적 공동선 실현 △전문문화 정책 수립 및 불교문화재

환수 △사회 문제의 불교적 대안 창출 등이다. 이들 9개 핵심과제와 관련한 17개 주요과제가 부서별로 시행된다. 조계종은 또 지난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지인사고과제도 시행, 4대강 살리기, 봉은사 문제 등 갈등 해소를 위한 화쟁위원회 운영, 사찰음식 대중화, 국제 선센터 개원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으로 불교 중흥과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평했다. 박기범 기자

언론과의 일문일답

자승 스님은 담화문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자들은 조계종과 정부여당의 경색된 관계와 담화문에서 발표된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다음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박기범 기자

Q 자성과 쇄신 결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A 결사의 후속조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구체화시켜 밝히겠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 1947년 봉암사 결사 등 한국 불교는 어려운 시기마다 결사를 통해 극복해 왔다. 이번에도 민족문화 수호와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결사

를 제시한 것이다.
Q 반 정부 기조는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A 정부와의 관계가 경색된 것은 민족문화 수호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편향,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보인다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지금의 기조는 정부가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지기 어렵다.
Q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란 무엇인가?
A 헌법에 문화재, 전통사찰 지원에 대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교계가 아무 성을 쳐야 시혜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지원의 제도

화·법제화가 이뤄져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변해야 정부와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다.
Q 정부나 한나라당이 대화 제의를 해온 사실이 있는가?
A 종단의 기본입장은 민족문화에 대한 정부 인식이 달라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 민족문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Q 개신교측과의 대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종교간 대화를 위해 타 종교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미 종교 평화와 위한 방안으로 여러 차례 중외방지법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타 종교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원로회의 등 “지지” 시민단체 “글썸”

내부 반성 촉구 등 큰 틀에서 환영... 자기반성과 평가, 실천계획 미흡 지적도

자승 스님의 신년 담화문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신년간담회를 통해 총무원장 스님을 적극 지지하는 뜻을 밝힌데 이어, 총무원장 스님의 정치 기반인 종책모임 화엄회·법화회가 담화문 발표 당일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는 내부적 반성을 촉구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동섭·박기범 기자

“젊은 총무원장이 잘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 운 스님



“총무원장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잘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담화문을 비롯한 조계종 민족문화수호 활동에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이 뜻을 보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은 1월 26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스님의 담화문 발표 내용에 원로의원 모두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밀운 스님은 “민족문화는 중요하다. 스님들은 밤잠을 설치 가며 야경을 돌며 화재와 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켜왔다. 산림도 스님들의 노력으로 보존됐다. 정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불교계가 대신해온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님은 “정부가 문화재 보호·관리라는 명목으로 한 일은 범당 몇 개 지어준 것 뿐이다. 예산 몇 푼으로 일망하게 떠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스님은 “불교계는 그간 정부 지원에 의존해 왔다”면서 “스님들은 좀 어렵게 살아야 한다. 생활이 넉넉해지면 산중에서 공부하려는 스님들이 줄어들고 서로 포교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 새 역사에 적극 동참하겠다”

종책모임 화엄회 성직 스님·법화회 정념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26일 범종단적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화엄회(회장 성직·좌)·법화회(회장 정념·우)가 이를 적극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화엄회와 법화회는 총무원장 스님의 권력기반이라 할 수 있는 종책모임들이다. 화엄회·법화회는 논평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적극 지지한다.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실천적 논의와 의지결집 당부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종교편향정책, 종교간 갈등조장, 민족문화훼손 등에 대한 대응활동 또한 대중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반성 우선 긍정적”

정용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전반적으로 불교계 안팎에서 요구되는 큰 틀에서의 문제를 잘 짚었다고 본다. 내부 혁신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적 신뢰 형성을 위한 내부혁신 방안이 구체화돼야 될 것이다.” 정용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신년 담화문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총장은 “세부 실천과 역량 결집을 위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덕담 수준의 예년 담화문에 비해 진일보했다. 쇄신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했다. 정 총장은 문호를 개방하고, 불교계 안팎의 여론을 수렴할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위한 과거 평가와 반성 실중”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



“전체적으로는 옳은 이야기다. 그 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평가와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 점이 미흡했다.”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자승 스님의 담화문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미래 지향성을 위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부 반성을 촉구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한 실천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운영위원은 자승 스님이 담화문에서 “역사 앞에 겸허히 참회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무엇을 반성하고, 참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두루뭉술한 선언에 그쳤다고 평했다.

“불교발전 의지 퇴색되지 말아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후 스님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퇴후 스님은 빠른 시일 내 자승 스님의 담화문이 구체화 될 것을 기대하면서 타협이나 아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압력과 유혹에 대비해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무조건 대립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요구는 하면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불교자주화를 위협한다면 분명 경계해야 한다.” 퇴후 스님은 담화문에서 자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며 불교 발전을 위한 결연함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총무원장과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고

청은 우종산 스님의 원효종 종정 사칭 등에 대한 입장 표명

1. 청은 우종산 스님은 대한불교원효종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2. 대한불교원효종의 유일·적법한 대표자는 현 총무원장 향운 김윤철 스님입니다.
3. 종정 명의 등을 사칭한 청은 우종산 스님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청은 우종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 1월 26일자 제13면 하단에 “대한불교원효종 특별대리인 종정 청은 스님”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고, 자신이 마치 대한불교원효종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특별대리인’은 특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원효종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원효종 전체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도 우종산 스님에게 “경주 망월사 사건에 관하여 우종산을 원효종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결정하였을 뿐입니다(2009카기713호). 따라서 청은 우종산 스님은 경주 망월사 소송에서만 원효종을 대리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원효종의 사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8. 25. 2007라1580 결정은 원효종의 유일·적법한 대표자로서 향운 김윤철 스님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고, 향운 김윤철 스님은 서울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원효종의 총회의원 선거를 진행하였으며, 원효종의 총회는 향운 김윤철 스님을 원효종의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였는 바, 현재 원효종의 유일·적법한 정통 대표자는 향운 김윤철 스님입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09가합72150 판결에서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은 우종산 스님은 결코 원효종의 대표자가 아니어도 불구하고, 원효종의 “종정” 직함을 사칭하고, 자신에게 원효종의 종도 신규 등록, 재등록을 하도록 종도들을 현혹시켰으며, 원효종의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자신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니, 이는 원효종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고, 적법하게 확립된 원효종의 종권을 뒤흔들고자 의도한 명백한 해종행위입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회는 이러한 청은 우종산 스님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스스로 사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도 감수하여야 할 것임을 공고하는 바입니다.